



지역사회의 든든한 벗,

중앙기업 이운희 사장

지난 81년 4월부터 양돈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그 규모를 꾸준히 늘려 현재에는 모든 2천두, 전체 돼지사육두수 2만두 규모의 양돈장을 일궈낸 중앙기업 이운희 사장(43세)은 20년 가까이 양돈장을 성실하게 경영해 오면서 계속적인 규모확장을 통해 지금의 중앙기업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 사장은 특히 불황일수록 더욱 과감히 투자를 하여 위기를 오히려 규모확대의 기회로 삼는 뛰어난 경영수완을 발휘해 국내에서 단일 규모로는 몇 안되는 기업양돈장을 일궈내 명실상부한 양돈부농(富農)의 표본이 되고 있다.

24세의 젊은 나이에 돼지를 처음 키워본 이 사장은 사람이 돼지에게 잘해주는 만큼 똑똑 잘 키우는 것을 보고는 돼지는 내가 해준만큼 나에게 보답해 준다는 신념을 가지게 된 것이 양돈에 발을 들여놓은 첫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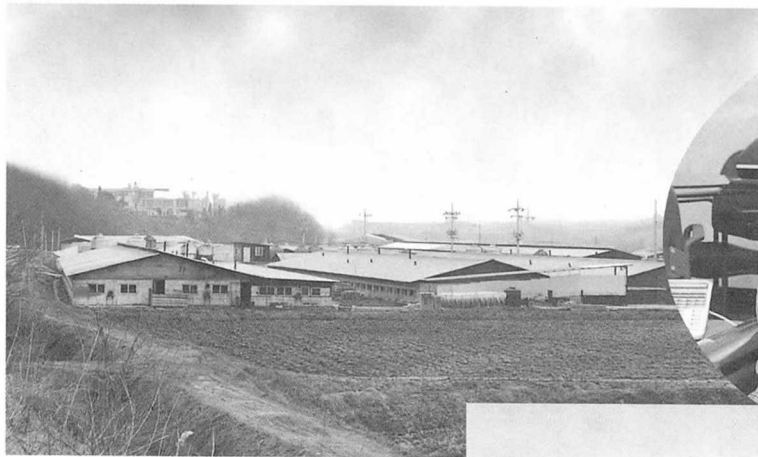
그도 그럴것이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후라서 돼지와는 전혀 인연이 없을것만 같았지만 이 사장은 오히려 양돈장을 꾸려나오는데 기계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십분 발휘하여 농장규모를 성장시키는데 큰 밑거름으로 이용했다고 한다.

각 분야별로 맡은바 최선을 다하는 중앙기업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청리에 위치하고 있는 중앙기업은 전체 14,000평의 부지위에 28개동의 돈사로 되어 있으며, 종돈분양 월 500두, 비육돈 출하 월 2,500두 등 월 3천여두의 돼지를 출하하고 있어 그 규모가 단일규모 농가로서는 상당히 큰 규모라고 할 수 있다.

돈사는 원치커텐을 설치하고 있으며, 모든 사료탱크 걸면에 우레탄을 쏘아 하절기에 사료가 상하지 않도록 해주었다. 또한 전 돈사에 온풍기와 각종 팬을 설치하여 환기와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공수정을 하기위한 중부사 등에는 에어컨도 설치하여 하절기에 더위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중앙기업 농장전경, 14,000평의 부지에 전체 28개동의 돈사로 되어있다.
- ▼ 20년 가까이 성실히 양돈에만 열중한 중앙기업 이윤희 사장
- ▶ 중앙기업 분양돈사 전경, 월 500두 가량이 종돈으로 분양된다.



분뇨처리는 분과 뇨를 분리해 처리하고 있었으며, 분의 경우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 지역 원예농협에 전량 위탁 판매하고 있었다.

종돈은 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들여온 요크셔, 랜드레이스, 듀록 등 60두의 웅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모돈의 경우 자체선발하여 사용한다고 한다.

특히 6~7산차 이후의 모돈은 대부분 도태시킴으로 이는 모돈의 산차구성에 상당히 신경써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등 경영자의 철저한 관리의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거의 100%에 가까운 인공수정과 주간단위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등 최첨단 사양관리를 접목해 다소 나태해지기 쉬운 큰 규모를 짜임새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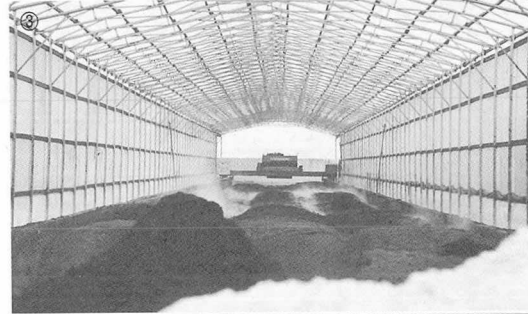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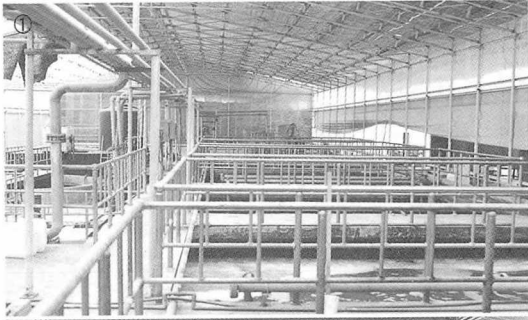
특히 사양관리에 있어서는 경기도 수원에 소

제한 한국 애니멀클리닉 김태주 원장으로부터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고 있으며, 농장의 모든 사항은 농장 자체적으로 전산관리를 하여 빈틈없이 농장이 관리되고 있었다.

중앙기업의 전체 직원은 45명으로 농장관리직원 18명,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데 10명, 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운송과에 6명, 시설과 3명, 그 이외 사무직원 3명, 식당 등 기타 5명이 분야별로 책임지고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하여 마치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서로 보완해 가면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기업의 자랑 중앙축산비료

중앙기업 이 사장도 양돈을 하면서 분뇨문제로 인하여 많은 고심을 하였다고 한다. 고심에 고심을 한 끝에 양돈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분뇨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겠다



고 마음 먹고 총 21억원을 들여 유기질 비료 생산설비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축분비료를 생산해 내고 있었다.

축분비료시설은 3단계(정화조, 발효시설, 비료 생산시설)로 나뉘어 설치되었는데 돈사에서 배출된 분뇨를 정화조에 투입하여 여기서 분뇨를 고액분리하여 노는 폴리머 응집반응과 가압부상 처리를 통해 80ppm 수준으로 정화시켜 방류시키고, 나머지 분리된 분의 경우 자동으로 톱밥발효시설로 이송돼 분 60%, 톱밥 40%의 비율로 교반발효시킨 다음 로터 등을 이용해 발효된 퇴비를 비료 공장으로 이송해 자동 포장라인을 거쳐 20kg짜리 비료를 생산하게 된다.

특히 국내 다른 농장들에서 시행착오가 많은 고액분리를 이 농장에서는 일반 공단에서 이용되고 있는 벨트프레스라는 장치를 이용해 분뇨분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나온 분 고형물은 수분이 거의 제거된채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훌륭한 비료원이 된다고 한다. 이 시설은 전국에서 논산축협과 중앙기업 단 두곳만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생산된 비료는 전량 지역 원예농협으로 출하돼 위탁판매 되며 그 규모는 월 1,200톤 분량으로 금액으로는 연간 14억 4천만원의 매출을 올려 오히려 유기질 비료사업이 부수적인 사업에서 중앙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효자분야로 성장하였다.

- ① 분뇨처리의 경우 노는 폴리머 응집반응과 가압부상 처리를 통해 80ppm 수준으로 정화시켜 방류시킨다.
- ② 벨트프레스 방식에 의해 분리된 분 고형물이 자동으로 톱밥 발효시설로 이송되어 떨어진다.
- ③ 톱밥발효시설 전경, 분 60%와 톱밥 40%를 혼합하여 발효하게 된다.
- ④ 자동라인에 의해 완성된 유기질 비료가 쌓여지고 있다. 1포(20kg)당 2,000원에 거래된다.
- ⑤ 완성된 유기질 비료



“최대한 노력하고 최소한만 생각하자”는 것이 경영방침인 이윤희 사장은 “너무 많은 욕심은 오히려 해가 된다며 사회활동을 통한 이익의 환원도 손수 실천한다.

출하는 이천 청림식품에 전량 판매하고 있는데, 농장 출하차량을 이용해 직접 출하를 하고 있었으며, 사료도 농장 사료차를 이용해 인천에서 직접 수송해 오고 있었다.

누구보다 방역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장은 외부차량에 의한 질병 전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농장 출하차량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농장에서 소비하는 사료도 그 규모가 상당히 커서 농장 사료별크차량 2대를 이용해 직접 수송해 옴으로 인한 물류비용의 감소를 꾀하고 있었다.

중앙기업은 이 외에도 중돈분양을 위한 차량 3대와 비료수송전문차량 4대 등 일반 농장에서는 보기힘들 정도의 규모를 뽐내고 있었다.

최대한 노력하고 최소한만 생각하자

중앙기업 이윤희 사장은 지난 20년 가까이 양돈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돼지를 잘 키울까를 생각하며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사양방법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고 지금껏 한눈

팔지 않고 양돈에 종사해 왔다.

이 사장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한 결과 돼지 2만두 규모의 중앙기업을 만들어 냈으며, 지금도 농장 구석구석을 다니며 하나 하나 손수 챙기고 있다.

또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매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새로운 기술을 획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고 있다.

특히 이 사장은 전세 관광버스 2대를 구입하여 놓고 이 지역 주민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끔 하였다. 이는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한 이 사장의 마음 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

“최대한 노력하고 최소한만 생각하자”는 것이 경영방침인 이윤희 사장은 “너무 많은 욕심은 오히려 해가 된다”고 말하고 나 하나 뿐만이 아닌 지역사회에 무엇인가를 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그의 마음속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신념이라고 한다. <취재 : 이병석> **양돈**